

東南亞諸國의 保健學教育 現況

鄭 文 植

서울대학교 保健大學院

겨울철에 東南亞로 여행을 떠나다니 추위를 피할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하며 부러워 하는 사람이 있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숙내의와 두툼한 외투를 입고 지내다가 평균 30°C가 넘고 습도가 높은 곳에서 지내기란 고역 이었으나 세탁소 종업원들의 이상한 생각을 불러 일으키며 챙겨간 여름옷도 하루만 입고나가면 땀으로 흠뻑젖어 한 지역에 가면 첫날에만 입고 나가며 가장즐겨 입은 옷은 간편하고 빨기좋은 나이론 남방이였으나 이런 온도차에 의한 고역은 지독하여 다시 한번 격게 되어 며칠간은 심한 몸살을 하게 되었다.

1978년 새해들어 채 설 기분도 가지지 않은 1월 12일에 출국하여 제일먼저 들른곳은 홍콩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Community medicine)이었다. 주임교수는 WHO의 Malaria Program과 싱가포르 대학에 있던 Dr. M.J. Colbourne으로 그날따라 토요일인 메라 그 다음날에는 Hawaii에서 열리는 암의 역학적인 면에 관하여 회의가 있어 떠난다고 하며 무척 바쁜 눈치였다. 그곳에서 주로 하는일은 의과대학생들에 대하여 강의하며 1년에 몇명씩 대학원생도 받으나 올해는 한명도 없다고 한다. 물론 대학원생의 입학자격은 의사에 한 한다. 두번째 들렀던 곳은 태국 방콕으로 시간을 많이 보낸 곳은 Mahidol대학교 보건대학(Faculty of Public Health)이었다. 12개과에 139명의 교수진과 435명의 학생을 가진 큰 학교이다. 주로 4년제 대학과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에 학생의 훈련과 연구를 위한 시범지역을 가지고 있었으며 최근에는 대학원 과정도 시작하여 의사 수의사 치과의사는 1년을 마치면 MPH를 수여하고 그외분야 출신자에게는 2년간 교육을 시켜서 MSPH를 수여하고 있다. 그외 보건간호원 과정(Diploma)을 가지고 있었다. 하루는 시간을 내어 방콕 교외에 있는 Asian Institute of Technology (AIT)를 방문하였다. 10여년 전부터 동남아에서 좋은 공과대학이라는 말도 들어온 바도있지만 친구의 제자인 시내 모대학출신 청년이 떠나기 전에 연구실에 와서 외국 유학에 관하여 문의도 하였으며 최근에 다시 그 친구에게 보낸 서신으로 나에게 상의한 일이 있어 가는길에 직접 가서 연구하는 것도 보고 내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기도 하여서다. 상당히 넓은 대지 위에 잘 설계된 공과대학이었다. 학생 기숙사와 교수 숙소가 있으며 골프장까지 갖추고 있었다. 각국에서 모집한 대학원생들로 학생은 400여명 앞으로 700여명까지 확장할 계획이라고 교실, 실험실, 도서관 등이 선진 어느곳에도 뒤지지 않을 정도의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었으며 교수진도 세계 각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 청년을 반갑게 맞아 실험하는 것을 구경 하였다. 물고기로 각종 유해물질이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연구를 하고 있었으며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어 교수에게 신임을 받아 그곳에 남아서 같이 연구를 계속 하자는 제의를 받았으나 어떻게할까 망서리고 있다는 중이라고 했다.

다음날은 태국의 이름있는 Chulalongkorn대학교 위생공학과를 방문 하였다. 특히 아시아지역에 30여 년 전에 위생공학과가 토목공학과와 분리하여 생겼다는 것에 놀랐다. 초창기에는 아시아지역 대학원생을 받다가 AIT가 분리 독립된 후 한때는 대학원생 모집을 중단 하다가 다시 대학 및 대학원생 모집을 하고 있었으며 독립된 건물과 실험실이 우리 보다는 더 좋게 갖추어져 있고 실험도 계속하고 있었다.

Kuala Lumpur 공항에 도착하니 Malaya대학교 의과대학의 Social and Preventive Medicine 주임교수인 Dr. Paul Chen이 자동차와 2명의 교직원을 공항에 내어 보내주었으며 그곳에서의 나의 일정과 편지를 전해주었다. 특히 Kuala Lumpur 시내 지도와 관광책자까지 동봉 해주는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 매년 8명 정도의 의대출신 대학원생을 받고 있으나 금년은 5명 뿐이라고 하며 3년 경험중 최근 1년을 공공기관의 경력이 있는 者를 추천에 의해서 오게되며 12개월의 과정을 마치면 MPH 학위를 받게되고 보통 교육을 받기 전보다 좋은 자리로 배치 되거나 진급을 하게 된다고 한다. 공부하는 동안도 봉급과 수업료 등을 받게 되며 공부하는 동안 근무는 하지 않는다. 차로 2시간 거리인 Telok Datuk에 교육보전지역을 갖고 있으며 여기는 의대생들도 와서 실지교육을 받고 있었다. 한편 보사부 산하의 Public Health Institute에서 보전 간호원과 위생감시원을 훈련하고 있었다. 싱가포르 대학 의과대학의 Social Medicine and Public Health과에서 오래 전부터 대학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現 前職 보사부 중견간부가 이곳에서 공부 하였으며, 지금도 고려대학의 염용태 박사가 산업의학을 공부하고 있었다. 최근 1년은 정부기관에 근무한 의대 출신자가 들어올 수 있으며 9개월 과정을 마치며 각국에서 전반적인 지식을 주입시키는데 반해 이곳도 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도록 하였으나 지역이 적고 교통이 편리하여 다른 나라에서 시골이라고 할만한 곳은 없으며 쉽게 섬 어디서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한분야에 전문가를 양성한다고 하였다. 또 각종 산업이 발달하여 산업의학을 공부 하기는 좋은 것 같았다. 자카르타의 인도네시아대학 보건대학원 (Faculty of Public Health)은 1972년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에서 떨어져 나와 독립기관이 되었다. 의사, 수의사, 치과 의사 등은 1년의 MPH 과정에 직접들어 갈 수 있으나 그의 학사학위 소지자는 1년의 Pre-MPH 과정을 밟은후 MPH 과정에 들어 간다. 최소 3년의 보건분야 경력을 가진 者로 관련기관에서 추천을 하면 서류 심사를 거친후 입학이 허용 된다고 한다. 공부하는 동안 직장에서 봉급과 장학금을 받으며 년 65명 정도 받는다고 한다. 인도네시아 중부의 대학 도시인 Jogiakarta의 Gadjah Mada 대학의 보건학 교실을 방문하였을 때 그곳에서는 대학과정 학생만 교육하고 대학원 과정은 없으며 의대졸업후 예방의학교실에서 3년간 조교생활을 하면 Jakarta에 있는 Faculty of Public Health에 보내 MPH를 취득 한후 교직원이 되며 Bali의 Udavana 대학의 예방의학 교실의 교직원도 같이 대학원 과정은 없고 대학에만 나가 강의 및 실습을 하고 있었다. 이번 여행중 Jogzakarta의 Borobaur사원, Bali 해변, 웅장한 활화산을 구경 하게 된것은 인상에 남는다. 전부 돌조각으로 된 산과같은 Borobadur사원의 웅장함이나 수백년의 비 바람에도 섬세한 조각의선 등은 예술에 문외한인 나로서도 감탄사를 금할 수가 없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라는데 수공이 같것만 같다. 인도네시아의 토족 문화가 잘 보존되었다는 Bali섬의 야자수가 늘어선 해수욕장, 민속전시장 각종 토산품(특히 이곳은 나무조각품이 유명함) 등이 인상적이었다. 활화산에 간다는 관광 버스를 탔으나 닥상 가보니 수십리 떨어

진 흰구름이 덮인듯한 활화산을 보고는 실감이 나지 않았다. Bali를 떠난 비행기가 큰 화산을 지날 때 미리 통보해 주며 그 상공에 도착하였을 때 그 위를 기체가 몇번 선회 하여 주어 바로 밑으로 내려다 볼 수가 있었다. 민속춤도 보았으나 태국, 말레이지아 및 인도네시아에서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았다. 비울빈의 Institute of Public Health에서도 요사이는 CPH나 DPH 대신 MPH를 수여하는 대학원 과정이 Medical Technology와 Sanitary Inspection 과정의 학사과정을 갖고 있었다. 한때 우리나라를 위시한 많은 외국에서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고 있었으나 요사이는 상당히 줄었다. 지금도 매년 석사과정에 70명 학사과정에 40~50명의 학생을 모집하고 있었으며 장차 박사과정도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2월 10일(음력 1월 4일) 대만에 도착하여 그 다음날 대학에 전화를 걸었으나 신년 휴일로 아무도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였다. 중국사람이 사는 동남아 각국에서의 음력설은 서양의 크리스마스에 버금가는 큰 명절인 것 같았다. 결국 월요일(음력 7일)부터 출근을 하였다. 마치 총소리 같이 사방에서 터지는 폭죽 소리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대만대학 의과대학의 6개 School 중 하나인 School of Public Health는 1969년에 본파와 같은 농촌 및 도시 지역의 시범보건소는 다 없어지고 지금은 교육(학교 교육)에 치중하는 생각이 들었다. 대학원에서는 매년 의대출신 5명을 M. Preventive Medicine, 다른 대학 출신 6명 정도를 MPH 과정에 받고 있었으며 1972년부터 Environmental Health와 Public Health Administration 전공에 年 40名 정도의 학사과정 학생을 받고 있었다. 2회에 걸친 보건학사가 배출 되었으며 지금까지 취직은 잘 되었다고 한다. 臺北에 있는 미해군 연구소(Namru-2)에 들렀을 때 1969년에 그곳 국방 의과대학(National Defence Medical College)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생학 교수인 Dr. Kek Khaw로부터 극히 인간적인 극진한 대우를 받아서 감동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臺北에 있는 이 해군 연구소(Namru-2)에 들렀을 때 96세의 그 노학자를 복도에서 만났다. 인사를 여쭙었더니 알아보고 그후 저녁에 Hotel로 찾아와서 식사에 초대하였다. 그 인간성에 가슴 뭉클함을 느꼈다. 이번 여행에서 느낀 것은 과거 미국이나 영국식의 대학원 과정을 실시하여 오던 나라들에서 각기 자기들 실정에 맞도록 교육 내용을 수정하고 있었으며 특히 태국, 비울빈, 대만 등에서는 정도가 낮은 학사과정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